



품종 사용료 없는 국산 감귤로...‘하례조생’ 성공 모델 확산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9일 제주서 신품종 재배 농가·디지털 유통 우수 사례 점검
- 재배면적 610헥타르로 가장 넓어...연 3만 그루 보급, 10년 내 온주밀감 10% 대체 목표

해외 품종 의존도가 높았던 감귤 시장에서 국산 신품종 ‘하례조생’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자 품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랑꽃감귤농장을 찾아 하례조생의 재배, 판매 현황을 살피고, 국산 품종의 보급 확대 방안을 논했다.

사랑꽃감귤농장은 국산 품종인 ‘하례조생’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동시에, 생산 과정을 SNS로 공유하며 전량 직거래 판매를 달성한 디지털 유통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다.

하례조생은 2004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나라 첫 국산 감귤 품종이다. 일본에서 들여온 ‘궁천조생’보다 당도는 1브릭스(Brix) 높고 산 함량은 약 20% 낮아 더 달고 신맛이 적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사랑꽃감귤농장은 노지 2만 6,500제곱미터(m²)에 하례조생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재배 5년 차로 11월에 첫 수확을 앞두고 있다. 온 가족이 생산부터 온라인 홍보, 주문, 직거래까지 맡아 운영하면서 감귤 생산 과정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 농장은 경사진 과수원에 운반용 레일을 설치해 수확한 감귤과 농자재를 나르고 있다. 레일 설치 뒤 수확·운반에 드는 작업시간과 노동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품종을 처음 심는 농가가 겪는 재배 기술 부족, 묘목 공급, 초기 판로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됐다. 농촌진흥청은 품종별 재배 지침을 보완하고, 농가와 유통업체가 출하량과 시기를 미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하례조생 묘목을 해마다 약 3만 그루, 재배면적으로는 약 30헥타르 규모로 보급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0년 뒤 재배 면적은 약 1,4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전망에는 기존 과수원의 품종 갱신 속도와 묘목 생존율, 농가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국산 품종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품종 개발뿐 아니라 재배기술과 묘목 공급, 판매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라며 “선도 농가의 경험을 새로 재배하는 농가와 공유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서귀포시 감귤 재배 영농 현장 방문 일정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강석범 (064-730-4101)
		담당자	연구사	박지수 (064-730-4143)
				

□ 현장 방문 개요

- 일 자: 2026. 7. 29.(수)
- 장 소: 사랑꽃감귤농장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등 5개소)
- 일정표

시 간	분	내 용
14:00 ~ 14:50	40	• 사랑꽃감귤농장 현장방문 - 농가 생산 상황, 판매 현황 청취 - 감귤 신품종 유통 확대 방안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감귤 '하례조생'의 특징

- 1992년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 '입간조생'과 '하귤'을 교배한 후 2004년 선발·육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감귤 품종으로, 일본 도입 품종인 '궁천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됨
- 노지, 토양 피복, 무가온 하우스 등 다양한 재배 형태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며, 11월 상순~중순 수확이 가능해 기존 '궁천조생'보다 약 2~3주 빠른 출하가 가능함
- 당도는 10.5~11.0°Bx, 산 함량은 1% 이하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당도는 높고 산 함량은 낮아 당산비가 우수하며, 과실 무게는 약 80g으로 껍질이 잘 벗겨져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
- 2024년 기준 국내 육성 감귤 품종 가운데 가장 넓은 598.4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매년 약 3만 그루(30ha)가 보급되고 있음

* 재배면적(ha): ('13) 6.771 → ('20) 512.3 → ('24) 598.4 → ('25) 610.4